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 죽음의 죽음

(호세아 14:1 - 9)

원로목사 **이종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의 죽음이란 중생하지 못한 자가 당하는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호 13:14)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4-55).

사망을 인격체로 말합니다. 사망의 목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회개를 재촉합니다.

### 1.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었드러졌느니라”(1절).

회개는 불의를 떠나 여호와께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까지 되어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3절).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했으나 그것은 이름뿐이었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는 추호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장에서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죄로 보는 것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불의를 불의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시작됩니다. 회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회복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4절).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에게 받는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억지로 사랑했다면 호세아의 상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고멜이 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5절).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슬은 사람들이 자는 밤에 고요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슬같이 내리십니다. 또 이슬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계속해서 내립니다.

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백합화 같이 활짝 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 3.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그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9절).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므로 양심을 억압하고 그 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주 많은 성도들이 "010-8915-7009" 번호로 박노철목사가 보낸 장로 선출에 관련한 공고문을 받고 이 공고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고, 더욱이 공고문을 발송한 "010-8915-7009"는 착신이 정지된 핸드폰입니다.

총회헌법상 장로선출은 당회결의로 노회허락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회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으로 교회가 분쟁 중에는 장로를 선출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문의 헌법규정과 절대유일한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박노철목사와 노회가 교회 분쟁 중에 당회결의 없이 장로 선출을 감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노철목사는 당회 결정 없는 그 어떤 공고문도 성도들에게 발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서울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대한 예수

교 장로회 통합 헌법도 필요를 따라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철저히 유린하는 집단은 서울교회와 상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자를 받으시더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당회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전체 공식 문자는 반드시 교회 전화번호로 보내지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서울교회 공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부디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위에 서울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거짓의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당회

# 불법감금죄 무혐의 처분

하영수와 6인(박두호, 최차순, 최양진, 이동만, 김균준, 최학인)은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 45분 부터 7시 20분까지 저녁예배를 인도하려 가는 박노철목사와 박노철목사를 호위하는 하영수의 6인이 5층 복도에서 장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의 벽을 만들어 모욕적인 언사와 집단적인 신체구속, 감금당하였다고 김시환외 6인(이강인, 안성현, 백성갑, 안흥희, 김성미, 이주영)을 불법감금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자들은 진술 과정에서 박노철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박노철목사를 내쫓으려했다는 어이없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한 바, 본 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박노철목사가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열쇠공을 불러 본당문을 불법으로 따고 들어가 강단을 무단 점거하였고, 이 때문에 본당이 아수라장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또 저녁예배를 인도하려 간다고 하여 막는 과정에서 박노철목사와 대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누군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한 바 경찰과 검찰도 이 영상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

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감금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을 통보하였다.

문의전화번호	2149-3860-9479-8009
발령번호	2-2110-2017-86039
서울중앙지방법경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2017. 4. 28.	
불법감금 및 수선	발신 서울중앙지방법
계 목	불기소이유통지
위자가 정당한 불기소이유를 아뢰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경찰청 2017 형제36737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하영수 외 6명
③ 피 의 자 (피의자)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가.감금
⑥ 처 분 결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17. 4. 26.
⑧ 처 분 요 지	가.혐의없음(무거불종분)
⑨ 불 기 소 이 유	범지 원조
⑩ 비 고	

#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

5월 15일(월)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를 "종교개혁의 국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운동과의 연관성"이라는 대 주제하에 오는 5월15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첫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자들의 논지 : Sola's 에 대한 이 시대의 이해"라는 제하로 이종윤 원로목사가 하며 제2강은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

고 이제와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의 제하로 정성국 박사가 한다.

제3강은 "'이신칭의'교리에 대한 적합성" 제하로 이승구박사가 그리고 제4강은 "가난과 번영의 삶속에서 동정과 측은히 여기는 사역에 대한 복음의 도전" 제하로 김철홍박사가 맡는다. 강사 네 분 모두가 저명한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로 우리를 깨워 주실 것으로 믿어 여러분을 초대한다.



English Worship Service  
Pastor: David John Khokhar / Room 802, 11:20 am

# 제2권사회 나눔의 집 운영 재개

교회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기간 나눔의 집이 운영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은 동네 분들에게도 입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언제 다시 문을 여는지 사무국에 문의 전화가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한층 따뜻하여져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봄맞이 대청소도 하시고 장롱 정리도 하실 줄 압니다. 장롱을 정리하시고 안 입는 옷이 있으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복도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헌 옷을 모으고 수요일예배 전후로 판매합니다. 나눔의 집 수익금은 구제 및 선교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담당: 심상필 권사회(제2권사회 구제부장)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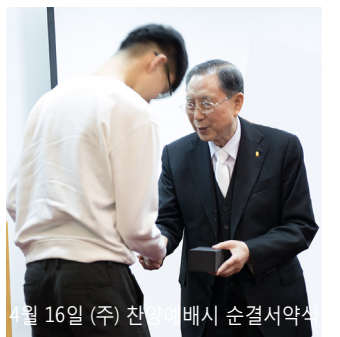
# 회복의 4월



4월 5일(수) 세례식



4월 16일(주) 권사회 주관 부활절 달걀나눔



4월 16일(주) 찬양예배 시 순결서약식



4월 16일(주)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4월 23일(주) 찬양예배 시 장애인 주일 사랑부 특별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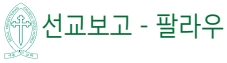


회복 되고 있는 교회 학교



풍성한 나눔의 손길





# 무너진 땅을 기경하여 영적부흥이 일어나도록!

## 1. 사역 - 교육선교(사역자양성), 군경찰선교, 어린이선교, 의료선교, 문화선교

1) 사역지의 선교적 필요와 상황 소개 : 팔라우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압, 축, 보나페이, 코스라이 섬을 잇는 교량의 지역으로 인구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느리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며 수많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인데 안식일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모더겐이 토속종교, 통일교 등의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왕성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슬람권신도들이 1000명이 특별기간에 집회를 갖는 것이 목격됩니다. 또한 명목상의 카톨릭신자와 개신교 신자들 그리고 독일식 신앙으로 굳어진 목회자들의 냉랭함이 현지 교회들의 저 성장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무디어진 땅을 기경하여 경각 하는 일과 영적 각성과 영적부흥과 선교적 교회 부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사역의 목적과 전략: 원주민교회와 협력사역을 통하여 현지교단과 교역자들의 영적 성숙과 현지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 제자로 양육하여 현지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 하도록 하는 데 전략을 둡니다.

### 3) 사역 내용:

A. 교육선교. PIU(Pacific Island University) 태평양지역 괌에 소재한 신학대학교에 학생들을 추천하고 후원교회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원하여 신학생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빌립일람과 파울루스 수웨이(필리핀 루터란신학에서 공부)는 현지인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롱(괌에서),에슬리(페렐류에서),헤드릭 팔(팔라우 코로에서), 물루왓(팔라우에서)사역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팔라우에 반젤리칼교회가 세워진지 88년 되는 해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선교사부부를 3월 10일에 난도와 갓또를 미국선교부와 현지교회와 연합하여 파푸아에 파송하였습니다.

### B. 군경찰선교(Palau Police Meletary Christen

Fellowship) 2008년도에 설립하여 팔라우 경찰들에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20여명이 모여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경찰들 가족의 영적치유와 회복을 위해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C. 어린이 선교.(Palau Children Evangelism Fellowship) 4/14 Windows. "Raising up A New Generation From 4/14 Window"/14 Window 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라"루이스 부시(Luis Bush)박사. 4세부터 14세의 세계 어린이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야한다는 미래 선교의 새 패러다임 전문인 어린이선교를 PCEF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D. 문화선교 한국문화보급과 한국어를 통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기독교문화를 생활하게 하고있습니다.(사군자, 한국음식-김치세미나, 다도, 찬양, 무용, 한국비전트림.)현재 4학기 4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 4) 선교적 전망과 도전 그리고 요구되는 선교적 필요

현재 팔라우 목회자가운데서 팔라우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하여 나가있는 곳이 괌, 싸이판, 압, 하와이, 알라스카에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울루스 수웨이는 압에 2년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 막크는 압 집사였는데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어 팔라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 2. 요구되는 선교적 필요

미국선교부의 질 높은교육 선교의 노하우와 독일선교부 지식과 믿음 그리고 한국선교부의 영적 열정이 연합하여 팔라우에 통전적인 선교를 펼쳐 나가길 소원합니다. 교회부흥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도록 각선교부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인재발굴과 양성이 요구됩니다.

팔라우에서 정상진 흥성임 선교사



#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 : 40 ~ 1 : 20 (2부 예배 후)  
504호

자녀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초대합니다.

문의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박해정 집사 (010-8730-0452)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떨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사 54:13~14)



## 동 정

- 개업: 이희정 성도 L's knitting 도곡로 405 삼환아르누보2 609
- 지난주 간식제공: 김선영 이정연 양길순
- 이번주일 식사제공 : 조상현 성도 최수황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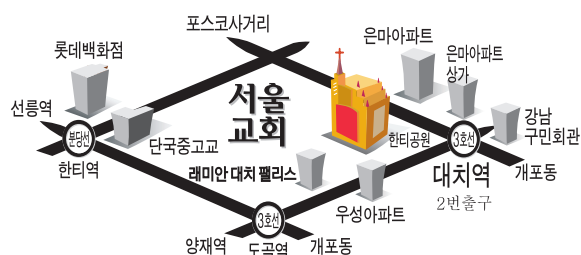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3.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북핵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